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망국의 길!

3만여 기독교인 시민단체 운집, 동성혼 OUT! 박원순 OUT!

서울시청 맞은 편 대한문 광장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동성애 퀴어축제반대운동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2016 퀴어문화축제' (이하 퀴어축제)가 지난 11일 서울광

장에서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경찰 추산 1만 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부스행사, 축하무대를 진행한 후 오후 430분부터 퍼레이드를 진행해 을지로, 퇴계로, 회현 사거리를 거쳐 2.5km

의 코스를 7대의 선두차량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이 자 극적인 의상으로 음악에 맞춰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뒤따르는 행렬들을 선동하면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보는 이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스들로는 남성의 성기 모양의 양초, 여성과 남성의 나체가 담긴 연서, 게이 잡지 등 성인용 장난감,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혐오감을 주었다. 이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1부 '교회 연합 기도회'와 2부 '생명·가정·효 페스티벌'로 진행되었다. 김선규 목사(예장 합동 부총

회장, 준비위원장)의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대회사, 유영식 목사(기침 총회장)의 대표기도,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의 격려사, 심영식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표회장)의 성경 봉독,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삼일대)의 설교, 홍호수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립인식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동성애가 이 땅에 발을 붙이

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배가 시작되고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대회사, 유영식 목사(기침 총회장)의 대표기도,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의 격려사, 심영식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표회장)의 성경 봉독,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삼일대)의 설교, 홍호수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립인식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동성애가 이 땅에 발을 붙이

▲동성간 항문 성관계로 인한 HIV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걸리는 에이즈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소들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결국 동성애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국가도 망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당국은 이 사실을 아는가? 청소년들이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려 허가 썩고, 항문과 성기가 썩고, 온 몸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이 사실을 후대에 무엇으로 보살할 것인가... <2면에서 계속>

제5회 한국교회(교단) 목회자 축구대회 예장통합 2년연속 우승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 조일래 목사)이 주최한 제5회 한국교회 목회자(교단)축구대회가 지난 6월13일(월) 오전 8시 경기도 하남시 선동체육시설 축구장에서 선수와 교단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할렐루야그룹은 예장통합이 2년 연속 우승을, 임마누엘 그룹은 기하성이 우승을 차지했다.

예장 통합 대신 기성 예성 합신 기하성 나성 개혁 개혁국제 개혁개신 한영 그리스도의교회 대신B 등 12개 교단 12개 팀이 할렐루야그룹과 임마누엘그룹으로 나눠 풀리그로 치러진 경기에서 할렐루야그룹은 통합이 우승, 기성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3위는 대신, 4위는 나성이 각각 차지했다. 임마누엘 그룹

에서는 기하성이 우승, 대신B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준비위원장 이재형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개회예배는 부대회장 임은빈 목사의 인사 및 대회사에 이어 김명찬 목사(한영 총무)의 기도, 고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의 설교와 최규석 목사(한영 부총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이어 이교범 하남시장의 환영사와 박영길 목사(개혁개신 총회장)의 격려사, 이종승 목사(대신 부총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종만 목사(운영위원장)가 진행설명을 한 후 박두환 목사(대신)가 선수를 대표해 선서하고 전년도 우승기를 반납했다. 이어 개회선언과 함께 내빈들이 시축함으로 3개 경기장에서 오후 5시까지 풀리그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개회사에서 "목회자 축구대회는 각 팀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경기이지만 오로지 이기기만을 다투



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한국교회 연합의 한마당"이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면서 페어플레이정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시영 목사는 설교에서 "경기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일치와 나눔의 삶이 실현되어 한국교회에 희망이 되고 영생을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교연은 이번 대회에서 각 팀이 넣은 골당 1만원씩 기부를 받아 1백여 만원을 불우이웃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WWW.JTNTV.kr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인천영광교회 **조 강 수** 목사 초청

“기도하는대로 꿈꾸는대로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꿈꾸는교회!”

기적의대성회

축복의기적 · 치유의기적 · 응답의기적



강사 조강수 목사



담임 이요셉 목사

7.3(일저녁)~6(수)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꿈의교회 담임 이요셉 목사의 비전은...

1989년 개척된 목포 꿈의교회는 영혼 구원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천국복음을 알리는 신문을 발행하고 매일같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목포 전 지역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문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데 온 성도가 열정을 쏟아왔다. 한국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 시키고자 3천교회를 세우고 1만 명의 일꾼을 양성하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꿈의교회 당회장 이요셉 목사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 (연산동873-1) 전화번호 : (061) 277-0498



제22회 목회자사모세미나 “행복충전소”가 불붙었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6월 20일(월) ~ 23일(목)까지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목회자사모들에게 말씀을 전할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 중앙교회),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오병열 목사(성산교회), 설동욱 목사(우리들교회), 박영길 목사(명문교회), 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이석우 목사(늘푸른진교회), 강진상 목사(양산평산교회), 다니엘김 선교사(JGM 대표),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박신실 사모(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등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사모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쿠팡출판사 ‘이회숙 사모이야기’라는 책에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함을 칠 정도로 도도하고 당당하였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강한 불을 내려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나의 교만과 자아와 나의 무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좋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요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글이 있다. 목사와 결혼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한 사모의 고백적인 글이다. 원래 ‘사모’라는 단어는 ‘스

승의 부인’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지만 목회자사모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

존경과 사랑을 받을 존재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헌신하며 많이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 목사와 결혼한 순간부터 목회자사모가 되고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과 사명이라는 기준으로 참아야 하니 어떤 사모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죄의 결과라면 목사와 결혼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다는 말이 이해될 수가 있다.

목회자사모는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목회자사모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 때문에 못할 때가 많고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다. 그리고 고함을 칠 정도로 도도하고 당당하였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강한 불을 내려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나의 교만과 자아와 나의 무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이렇게 목사와 결혼한 후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사모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받게 한다.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 참석했던 구세군순천교회 안상녀 사

모는 “첫사랑 회복과 목회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가 행복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행복충전소와 발전소가 되도록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모가 되겠습니다.”라고 사모세미나 참석 소감을 말했다. 또한 고락교회 조해진 사모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 응어리진 마음 풀어 주심에 감사, 불신자 가정에서 사모로 불러주심에 감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 눈물 주심에 감사,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라고 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는 눈물이었고, 웃음이 있었고, 행복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으며, 새 창조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모들이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모들 스스로가 새로운 능력과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제가 국민일보에 연재한 칼럼 중에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골 길을 걷다 보면 논두렁에 우렁이 껍데기가 동동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 우렁이가 새끼들을 위해 자기 속살을 다 파 먹어 키우고 빈껍데기가 되어 사라져 가는 모습입니다.

논두렁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왜 그런지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끝없이 퍼주고 퍼주며 결국엔 빈 껍질로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평생을 자식 잘 되기만을 소원하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니가 아니면 자식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뛰어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미 우렁이가 새끼들을 위해 자기 속살을 다 파먹고 키우는 것처럼 사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성도님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타 들어가고 속살이 파헤쳐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헌신하는 것이 목회자사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서 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목회자사모님들이 많습니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이렇게 텅 빈 사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고 충전되어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목회자사모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회복과 충전 그리고 치유의 현장인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 모든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라고 전했다.

감신대 신학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피해자 B씨 서부지검에 형사고발 할 듯



감리교신학대학(총장 박종천, 이하 감신대)이 신학교수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감신대 총학생회도 ‘A교수 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하고 학교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서부지검에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알려져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계보도에 따르면 감신대 조직신학 전공 A교수(60세)가 지난해 7-12월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여제자 B씨를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학부 시절 지도교수였던 C교수에게 최근 고백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C교수는 이에 자신을 포함한 교수 10인 명의로 지난 1일 학교 법인사무처와 총장실에 ‘성범죄 교수에 대한 조사의 건’

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B씨의 진술서도 포함됐다.

한편, 감신대 제32대 총학생회가 ‘A교수 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놓고,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려는 시도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원이나 사건 자체의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추측하고 찾아내려는 시도들은 피해자에 대한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는 이번 A교수 성폭력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재방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회장 윤광식 기자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오정호 목사 초청 세미나 열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에서는 한국 새로남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오정호 목사를 초청, 세미나를 열고 은혜를 나누었다. 6월 7일(화) 오전10시부터 비원2

층의 홀에서 김종용 목사의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김재울 목사의 기도와 서혜원 권사의 특별 찬양과 최순길 목사(충신동문회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엄규서 목사의 인사말 등의 순

서로 진행하였고, 오정호 목사가 강의했다. 오 목사의 강의가 끝난 후, 정해진 목사(교협 증경 회장)가 격려사를 하고 윤성원 목사가 축도한 후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원원)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원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회 고침받음
- ☆ 남수영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자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목사 이규필
(합동보수 총회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역대상 16:34)

예/배/시/간/내

주일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아침기도회	오후 9:00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약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 02)854-1326

예장합동보수 하계수양회에서 임시총회 열어

동사목사, 여 목사제도 등을 가을정기총회에서 통과한다.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지난 5월 30일(월)~6월1일(수)까지 충남 서천 유스호텔에서 3일간 “여호와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리라”(시9:1)라는 주제아래 100회 총회교역자 부부하계수양회를 개최하고 총회발전과 각 노회,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 등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첫날 하계수양회는 오후 5시부터 접수를 받고 저녁 8시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총회서기 임상국 목사의 기도, 대금연주로 영광을 돌린 김기현 전도사, 이어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는 시9:1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곳까지 오신 총회원들을 환영한다면서 격려”했다. 따라서 “전도, 부흥, 목회가 열악한 때임을 지적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이어 송인섭 장로 (대회 회계) 헌금기도를,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금강포구에 서서라는 축시를 낭독하고, 준비위원장 전예



희 목사는 대회를 선포했다. 이어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김영국 목사(호남노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 특별기도회에 조영만 목사(대회총무)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치현 목사(경남노회장),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한복희 목사(한중노회), 노회와 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기장 목사(한중노회 부노회장), 수양회와 특별교육을 위하여 장수현 목사(대구노회)의 특별기도회가 이어졌다.

따라서 이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임시총회를 선포하고 안건

으로 현의(동사목사제도)와 여 목사 제도에 대해 다루고, 전 노회가 결의했으며, 헌법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오는 101회 정기총회에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김영국 목사(호남노회 노회장)축도로 마쳤다.

31일 새벽 예배는 행9:32-35절 주자광 목사(총회 부서기)의 성경봉독을 전예희 목사(대회 준비위원장)는 “예수님을 만나며”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박용순 목사(서인노회 증경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합동보수총회는 31일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낮 시간은 각 노회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저녁에는 김상대 목사(총회 부회록서기)의 인도와 이세중 목사(한중노회 증경노회장)의 기도, 특별감사 윤석철 증경총회장의 인도로 행1:6-11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말씀으로 특별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합동보수총회는 2016년 100회 교역자부부 하계수양회가 6월 1일 새벽 7시 에 폐회예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회예배는 대회서기 김관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서재식 목사(총회 회의로 서기)가 기도를,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마9:28-



29절을 중심으로 “기도는 능력이 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가 폐회를 선포하고,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후 김국태 목사

(한중노회 증경노회장)의 축도로 예장합동보수총회 2016년 100회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를 마치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섬기는 목양자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글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야의 양보와 화합으로 시작된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대화와 협치를 통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지지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은 위기를 넘어 기회를 만들며 진일보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의 경제위기 상황, 북핵 문제 등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국민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내용인 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입법과 함께 정부의 충분한 보완

책 마련을 요청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뿐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인권법을 기초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이 구체화 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크리스찬컵 자선골프대회 열려 원로목회자에게 백내장 수술비 전달

원로목회자들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위한 자선골프대회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CSKC) 이사장 임원순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탄사후원재단(KCPSF) 상임대표회장 김진욱 목사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KCLC) 설립자 이주태 장로와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 한은수 감독이 주관한 ‘2016 크리스찬컵 교계 기자 자선 골프대회’ (대회장 강영선 목사, 조직위원장 김진욱 목사,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가 13일 경기도 이천 덕평CC에서 개최됐다.

대회에 앞서 개회예배에서는 김진욱 목사(CSKC 상임회장)의 사회로 강영선 목사(CSKC 총재)가 ‘언론의 힘’(요 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송용필 목사(CSKC 대표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개회식에서는 강영선 목사가 대

회사,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이 환영사, 박수광 목사(국제푸른나무 이사장)가 축사했다. 폐회식에서는 김진욱 목사가 시상했다.

주최측은 이날 대회에 이어 20일 충북 청주그랜드CC에서 목회자 골프대회를, 7월 18일 청주그랜드CC에서 평신도 골프대회를 연다.

주최측은 이를 통해 1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1차적으로 7월 5명에게, 이후 매월 5명씩 2년간 100여 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직위원장 김진욱 목사는 “이번 골프대회는 수익목적이 아닌 원로목회자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자선의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평생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목회자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국가가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혜택을 주듯,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씨를 이 땅에 뿌린 원로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골프대회가 아닌 원로목회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20일에 개최되는 목회자 자선골프대회와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평신도 자선골프대회에도 많은

관심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주진위원장 신연욱 대표는 “골프가 고비용의 스포츠라고 하여 더 이상 음식의 스포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과 목회자가 건강을 위하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내에서도 골프가 선택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모범적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빌1:2)

2016년 5월 30일(월) ~6월1일(수) 까지 총회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기에 감사드립니다.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

총 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목사
(천북교회)

경 남 신 학 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전예희 목사
(신평교회)



임상국 목사
(천북북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천북교회)



조영만 목사
(사온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철 박사

경 남 신 학 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총회사무실/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구/가산동 151-47)

총회장: 이규필 목사 HP 010-7474-3174, 동천교회: 02)854-1326, 496-0181(FAX)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7

성막과 영성훈련, 성막구조 개관, 단계별 성막 구조

〈지난호에 이어서...〉

3. 단계별 성막 구조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회막문, 성막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다. 이는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알고 따라가야 할 아주 중요한 구원의 서정이다.

1단계 회막문: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로서 이곳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곳을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도 받을 수 없고, 거듭나 하나님을 뵈을 수가 없다. 예수 그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2단계 성막 뜰: 성막 뜰은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갈 희생제물을 잡아 각을 때, 번제단에서 태우기 위해 준

비를 하는 곳이다. 즉 죄를 대속하는 장소이다.

3단계 번제단: 성막의 번제단은 엄숙하다 못해 두렵고 떨리는 장소이다. 번제단 앞에서는 모든 죄가 낱알이 고백돼야 하고 내 대신 누군가의 생명이 죽고, 내가 대신 사는 장소이다. 이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소로서,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장소를 상징한다.

4단계 물두멍: 물두멍은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이 쓰던 솥 거

울을 헌물로 받아 만든 솥거울에 대야 같은 것이다. 성경에는 크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짐작컨대 직경이 2규빗(1m)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물두멍은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영적인 의미는 더 깊은 데 있다.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이 솥대야는 거울을, 그 안에 담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고 의롭다 함을 얻어 다시 산 자가, 물두멍에 이르러 은혜받은 자기

얼굴을 비쳐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요 3:1-10)를 받아 거듭나는 장소이다. 이곳은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이다(돌아온 탕자, 눅 15:11-27).

5단계 1) 성소: 성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둥근 호떡보다 조금 더 큰 무교병이 두 줄로 6개씩 놓여 있었다. 도합 열두 개로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떡은 말씀 즉 하나님을 의미한다(요 1:1). 또한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는데, 이는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예

표한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은 살균작용을 하는 향을 놓아둔 곳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할뿐 아니라, 구원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뜻한다.

즉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어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상징한다.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으로 살며, 예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지성소: 법계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대제사

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엄한곳이므로 대제사장도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매고 들어간다.

만일 대제사장 예복 끝에 달린 금방울들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밖에서 끈을 잡아 당겨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함이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 즉 천국 보좌를 뜻하며 죄를 지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가 열림으로써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3)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대원군은 거대해진 외척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이 왕권체제를 회복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과도한 개혁정치로 인하여 재정의 파탄과 민중의 원성을 사게 되어 결국은 반대파의 정치세력에 의하여 실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외척세력으로 민씨 일파가 대두되었다. 19세기말 조선의 정치체제는 중세적 타성과 인습에 얽매어 사회민중으로부터 격리, 고립되어 있었다. 즉 정치세력은 정치체제의 기강문란과 국민에 대한 가렴주구를 행하는 한낱 이익집단에 불과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7세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산의 근거인 토지가 지주 계층의 독점지배로서 농민에게 적절한 분배가 없었다. 그리고 지주 계급인 양반 관리 유생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도구의 소유에서 유리되었다. 그럼으로써 농민은 의욕을 잃고 이탈되어서 지주계층과 봉건지배자들에게 질서와 불신을 가지게 되어서 진주민란과 홍경래란 등의 농민투쟁을 유발하였다.

사상적으로는 국가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은 양대 병란 이후 민중의 의식변화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17세기에 일부 실학자들에 의한 개혁의지가 있었으나 실현이 되지 못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사회 민중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3) 민족의 저항과 사상

가)동학사상)同學思想

동학사상은 최제우에 의해 포교된 사상으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改革모임

로 주체 세력을 농민계층에 두고, 서학에 대한 대항과 도탄에 빠진 농민을 구제하는 사회 개혁의 사상이다. 전통적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에서 이를 역전하여 천의 중심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은 곧 하늘님”이라는 시천주 사상을 정립하였다. 즉 인간은 모두 똑같은 하나의 한울님(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동학에 교화되면 지상천국이 건설되어 서양의 오랑캐가 물러나고 국민은 행복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학사상은 농민층에 커다란 지지를 얻고 전국적으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894년 동학세력은 집권세력이 농민의 수탈에 정신이 없을 때 이에 항거하여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하여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원을 장악하고 정부군과 대치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회개혁 즉 노비제도와 반상차별제도의 폐지, 농민에 대한 고리대금 업의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군에 진압되어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우리

나라가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동학의 사상은 인간중심 사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동과 부녀자들에 일시적 인식을 변화시켜 평등하게 그들을 대하였다. 부녀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임신한 여자가 보이면 동학도는 옆으로 비켜서서 보호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아동에 관심을 가져서 이후에는 동학도인 방정환은 한국 어린이를 위한 동요 동화 등을 만드는 사상적 결실을 가지게 하였다.

(나)개화사상(開化思想)

개화사상은 서양의 선진적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화사상은 개항을 주장하여 외국과 접촉을 촉진시키고 외국에 인재를 보내어 문물을 견학시키고 유학을 장려했다. 그리고 개화 사상가들은 근대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1884년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패하여 망명과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개화사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의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이니 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동양의 과학기술이 낙후된 것은 사회제도 상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국정전반을 개혁하여 사회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종래의 정제군주제를 일원군주제로 개혁하고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사코너(73)

“위로자 성령이 죄·의·심판을 책망하리라”(요 16:7-11)

본문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6절과 관련된 것이요,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므로 슬픔이 너희에게 가득 하다고 했지요.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3-4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를 출회하고 죽이리라. 즉 요 15:19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이들들은 제자들은 격정적 슬픔이 가득했지만 내가 가서 보내는 위로자가 오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즉 위로자가 오시면 이런 슬픈 일들이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위로자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능력으로 붙잡아주어 세상의 어떤 괴롭힘은 역사도 넘기지 않게 해주시리라. 결국 주님 말씀대로 그 이후 실체가 됐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 특히 첫 케이스인 스테판 집사가 담대히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기쁘게 순교했지요. 그 다음 야고보 사도와 계속하여 열두 사도들이 다 위로자 성령 안에서 순교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의·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세상이라 함은 일반 개념인 세상이 아닌 인격체를 말합니다. 즉 요 15:18, 19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서기관·대제사장들이지요. 그들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소위 택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위로자 성령이 그들을 책망하시리라. 첫째,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

을 책망하리라. 세상의 그들은 물론 죄 없다 하지요. 왜요? 하나님 계명, 율법을 잘 지켜 행했으므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오직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다 죄이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죄 짐을 맡으시어 속죄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리라.

또 두 번째,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함이라. 즉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는 본체가 하나님이니시니 의요, 예수님이 수속하여 모든 하나님 계명, 율법을 100% 지켰으니 그것이 또한 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서기관들은 자칭 의인이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리리라.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대제사장 등 세상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란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죽였으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그분은 죄가 없음이 입증됐고 도리어 죽인 자들인 세상이 정죄, 불법, 불의가 드러난 것이지요. 이것이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 받은 것입니다. 그의 사망권세가 깨뜨려져 멸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하는 성도들이나 종들은 육신은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결코 사망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이 아닌 것임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본사 부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몽 목사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성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주일예배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송옥 목사(우솔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국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숙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침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통일대박은 류길재가 기획한 적화통일 음모

지금은 안보에 집중할 때이지 통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통일과 통일세력, 둘 다 처부쉬야 할 위험 존재

지금 대한민국은 난파된 상태라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다. 안보, 경제, 치안, 언론, 사법 모두가 적화되었고 도덕적으로 붕괴돼 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사라지고 없다. 오직 때쓰기와 세도와 물리-언어적 폭력만 난무한다. 지휘력도 죽었고, 법도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 하지만 가장 심하게 살아 번성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통일세력이다. 통일세력의 주도권은 남한 빨갱이들과 성본 좋은 서울광수들이 휘어 잡고 있다. 통일이라면 무조건 눈물부터 흘리는 감성적 국민들도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은 안보에 집중할 때이지 통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안보를 강조하면 통일은 저절로 올 수 있지만, 통일을 강조하면 나라가 북으로 넘어간다. 통일은 북한이 저절로 망하고, 북한군이 무장해제

당하는 그날에만 올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 하겠는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다. 사실상 논리상으로는 통일은 불가능 하다.

지금 애국세력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마치 통일을 외치야만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통일대박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들의 음흉한 흥계를 알지 못한다. 지금 빨갱이 세력이 통일을 필요 이상으로 소리치는 이유는 오직 적화통일을 위해서다. 빨갱이들이 우익식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통일 후 그들의 명단이 북한에서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거수자(거동수상자) 류길재는 박근혜 정권 초대 통일부장관이다. 여러 이유로 나는 이 사람들을 의심해왔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말들을 그가 쏟아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대북 정책 관련 입장이 변화해야 한다. 보수 세력이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완화하고 양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는 민족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진보세력과 (통일 관련) 공감대, 소통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큰 성공일 것이다."

그의 족적을 보면 모두 기절초풍을 할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대박은 결국 류길재가 기획한 것이다. 통일대박에 선 세력이 모두 골수 공작요원들이기 때문에 통일하자고 나서는 인간들이 위험한 것이다. 서울광수 세력이 여기에 속하고, 남한에서 태어나 김일성에 의해 길러진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들이 여기에 속한다. 서울광수들은 트로이목마다. 이들은 이만갑, 잘살아 보세, 남남북녀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인기와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남한의 부나비들을 총 동원하여 결정적 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안과 밖에는 1980년 광주에 얼굴이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다. 서울광수들은 평양에서 자란 성분 좋은 집안 아이들을 광주에 데려와 꿈나무로 키운 사람들이지만, 남한에서 태어나 김일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꿈나무로 자란 아이들도 대거 광주에 갔다. 류길재도 그런 사람일지 모를 일이다. 이들이 모두 통일전선에 전위대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로 전현직 장관들 중에 김일성 장학생들이 광수로 동원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500만야전군의 분석이다.

류길재의 붉은 족적

류길재는 김대중 정권 시절 발표한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 이적발언 : 주한미군 감축, 작전 완전회수,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수정 등을 주장하며 이적적

발언을 했다.

2. 흡수통일은 반대 : "고토회복이나 흡수통일이니 하는 개념은 전근대적인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뚫만 아니라 오히려 '아니 한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가장 좋은 통일정책이다. 핵발전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위로부터 구해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며, 변화된 북한과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는 정책이다."

3. 대북 퍼주기 지속해야 : "인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료를 계속 주어야 하고, 무상 지원의 빈도와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 도와주려면 조건 없이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세상의 이치와 같다."

4. 작전권 완전회수 : "점진적이지만 완전적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수정하고, 북한이 핵무명성을 보장하며 대량파괴무기, 독자적 기습군사능력과 군사력의 공격형 배치 등과 관련한 군비통제에 협력할 경우 핵

무산 철회, '공동의 위험' 조항 삭제 등 한미 간 군사동맹을 전향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5. 북한의 강성대국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강성대국정책은 북한판 부국강병 전략이다. 1960, 9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우리의 '조국근대화' 전략인 북한판 부국강병 전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추론이 간단하게 성립한다...(종략) 따라서 겉으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운운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강국 건설이 사실상 강성대국의 핵심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금은 통일대박 분위기는 류길재의 적화통일 음모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이제 보니 그 통일은 류길재가 기획한 적화통일이었다.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겁아들인 2,250여명의 모금도 모두 서울광수들과 북한에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결론

지금은 통일대박은 적화통일을 위해 류길재 등이 '통일의 주력병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광수 세력, 국정원에 김대중이 심어놓은 빨갱이세력, 이들을 널리 띄워주는 방송국들, 적화통일 선전부대인 조선일보 등이 기획 연출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바꿀 조이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의 이런 압박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 적화통일음모는 지속되어 아마도 지금쯤은 매우 절박한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부터 일치단결하여 통일대박 정책을 배척하고, 통일전위세력을 압박하여 그들이 설 자리를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충신대 학부 교수들 뭐하고 있나

실체 없었던 충신대 성소수자 모임 '재학 증명서' 공개...파장 클듯

충신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강충강충' SNS에 재학생이라면 '재학 증명서'를 공개해 파문이 확산될 예정이다.

충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함영용

부총장 등은 지난 11일 서울광장 맞은편 프레지던트호텔 앞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집회에서 충신대에 있는 동성애 동아리가 없다고 밝히면서 충신대 이름을 도용해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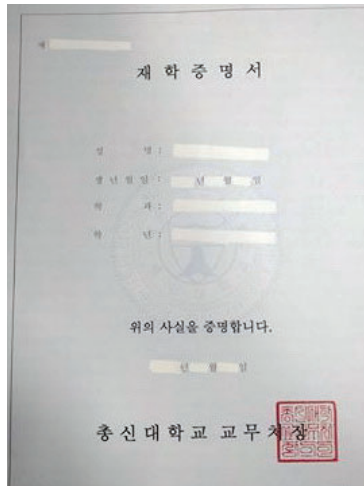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어느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학교의 허가를 받아 공식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난 2월 21일과 22일 국민일보, 2월 26일 뉴스파워에서 '강충강충'에 대해 기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충신 관계자에 따르면 충신대학부는 오히려 학교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강충강충' 동성애자 논란을 쉬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쿼어집회를 하루 앞둔 뉴스파워가 충신대 이름이 쓰여진 동성애모임 깃발이 쿼어집회에 등장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자 부랴부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긴급 교수회를 열어 다음날 동성애 반대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신대가 쿼어집회 현장에서 동성애 반대집회를 개최했음에도 충신대 깃발이 등장했다며 '강충강충'은 자신들의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충신대 선배라는 김모 씨는 후배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쿼어집회 후 뉴스파워가 "SNS 계정 폐쇄부터 하라"고 함 부총장과 김 총장 등에게 제안하자 그때서야 '강충강충' 계정 폐쇄를 위해 바빴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동 총회 내부에서는 충신대 이미지 추락을 가져온 '강충강충' 사태에 대해 "학교가 주인이 없는 것 같다"며 담당함을 토로하면서 "충신대 재단이사회가 총장과 학부 부총장 그리고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예장통합의 이단 해제 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방해하는 성명서를 우려하며 규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지난해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화해와 용서'를 선언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한시적 특별사면 제도를 실시기로 했다. 이 사면에는 통합측 교단 역사를 통해서 권징을 받은 내부 사람들에 대한 사면과 통합측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외부 인사들과 단체와 교단들에 대한 이단해제가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기초하는 통합측 교단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직접적 이단감별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이단 규정과 시비로 많은 개인들과 여러 단체들이 이단으로 몰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 연합과 화해를 위한 통합측 총회의 이 역사적 사건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예장통합의 이단 해제 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통

합측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남의 잔치에 "밥 나눠 대추 나눠"라는 격이다. 그들은 직책상 통합측 교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로서, 소위 '이단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백 00 목사님과 백 00 목사님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주재님께 타 교단의 주요 정책을 시비하고 나선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화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러한 행위는 교계로부터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 즉 성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부당한 이단시비로 한국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통기는 무엇이며 그들이 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2. 예장 통합측을 향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단하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특별사면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도록 결의한 통합측의 지난 제100회 총회 1500명 총대 모두를 처벌하라는 말인가?

3. 미주교회들은 현재 한국교회의 연합 단체들이 분열되고 연합과 일치에 파괴된 것이, 이권 문제와 관련되어 마구잡이식으로 이단들을 양산해 온 소위 이단 감별사들의 분별없는 활동과 업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우리는 예장통합측 총회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특별사면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그리스도의 마음, 즉 사랑의 정신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높이 평가하며, 이단연구를 앞세워 형제를 정죄하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해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행하게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8:00 3:40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 1층 대예배실

3회 오전 11:30 3:40 대예배실

주일 오후예배: 오후 2:30 1층 대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00 3:40 대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30 1층 대예배실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1층 대예배실

매일새벽예배: 오전 5:00 1층 대예배실

목포주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530-814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워단지)

전화: (061) 272-4908, 278-0692 팩스: (061) 278-0693

홈페이지: http://www.mokpojuan.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6 표어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새벽 5:30

·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오후 7:00

· 청년/학생부: 통합예배

· 수요일예배: 오후 7:30

·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HYUN PRESBYTERIAN CHURCH

예/배/안/내

세례기도

5:00

유해유자부

오전 11: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홍조동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송+고동부

오전 9:00

3부

오후 2:00

황진+성동부

오후 2:00

성현교회

성현교회

성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성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표어: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장승현

REV. Jang Sung Hyun

예/배/시/간/안/내

· 협동목사: 김제홍

· 전도사: 허심성

성가대

· 대장: 윤철호 집사

· 지도: 장성진 선생

· 반주: 강다연 자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TEL: 041) 356-0644

E-mail: sunghyun732@hanmail.net 홈페이지: http://pyeong-an.com



예장(진리)총회창립, 총회장에 장한국 목사 당선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를 선출,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임명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는 6월 6일(월)~8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사당골길 금호리조트에서 대한노회, 새서울노회, 초대노회, 한중노회의 주체로 예장(진리)총회를 창립하고 무기명 투표결과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총회장에, 부총회장에 조조복 목사를 선출하고, 신임회장단은 임원들과 총무를 선정 발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했다.

총회에 앞서 이영이 목사(유전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박민규 목사(새생명교회)가 기도를, 조조복 목사(창녕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가 창립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주비위원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요 8:31~32절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하의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으며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첫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질병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둘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셋째는 예수님이 의가 되셔서 의로 옷 입혀 주셨고, 의롭다고 칭의를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고, 넷째는 진리되신 예수님이 부여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총회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받았으며, 진리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성찬식에서 장한국 목사의 집례로, 분병/분찬위원은 조조복 목사, 박민규 목사가 맡았으며, 증경총회장 최평욱 목사(생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주비위원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예장(진리)총회의 창립을 선포하고 총회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임원선거에 들어가 총회장, 부총회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출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명단이 발표되고 총대들은 축하의 박수로 추인하여 장한국 총회장이 임원을

임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100회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대한/주사랑교회),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새서울/창녕교회), 서기 오진철 목사(초대/유성교회), 부서기 박민규 목사(대한/새생명교회), 회의록서기 배만복 목사(새서울/축복교회), 부회의록서기 김성덕 목사(새서울/생수교회), 회계 이영이 목사(새서울/유전교회), 부회계 김정미 목사(대한/새에루살렘교회) 등이다.

이날 예장(진리)총회는 31일(화) 오전 6시 서기 오진철 목사(초대노회장)의 진행으로 장진희 목사가 기도, 김성희 원장(제자수도원)은 계 22:17절을 인용 “성경의 총 집대성”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박용환 목사(샘솟는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오전 10시부터는 부서기 박민규 목사(새생명교회)의 인도로 총부회계 김정미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행 6:5~10, 7:55절을 본문으로 “스데반을 순교케 한 일곱명의 역사의 비밀”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특강을 가진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각 노회별로 단합대회를 가진 후 저녁 7시 부회의록서기 배만복 목사(축복교회)의 진행으로 송영희 목사(민음교회)가 기도,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창녕교회)는 빌 4:8~9절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증경총회장 최평욱 목사의 축도에 이어 선지수도원 원장 최성희 목사는 출 19:18절을 본문으로 “불 가운데 감람하셨다”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6월 8일 오전 6시 회계 이영이 목사(유전교회)인도로 폐회예배가 시작되고 박용환 목사(샘솟는교회)가 기도를, 서기 오진철 목사(초대노회장)는 눅 5:1~11절을 본문삼아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2박 3일간의 예장(진리)총회가 창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시간 시간 세미나를 통해 총대로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성령 충만으로 충전을 받아 화기에애한 속에 가을총회 때에 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한편 대한노회는 지난 13일(월)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마벨리에 뷔페에서 진리총회를 창립하고 초대 총회장으로 당선된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노회원일동이 축하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참고/ jntv방송(www.jntv.kr)과 지저스타임즈 신문을 통해 총회소식을 알 수 있으며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특강은 3부작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청가능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영적 사역 배화여자대학에 장학금 일천만원 기탁 10명의 장학생들에게 1학기 장학금 혜택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배화여자대학교 10명의 장학생에게 2016년 1학기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 장학금은 하나님에 주신 믿음 안에서 배움의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실어 주었다.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실 김언영 목사는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여성 인재들을 길러내는 배움의 전당으로써 소임을 다하여 보내주신 뜻에 부응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일과학업 병행하는 모범적인 학생도 있어 각 학과장들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 10

명의 장학생 중에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모범적인 믿음을 생활을 하는 학생도 있다. 유치원 신입교사의 대표가 될 정도로 열심인 이 학생은 귀한 장학금에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아동 보육과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학생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지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저도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학생들 광림교회는 매년 1억여원을 마련하여 고등학생과 일반대학생 및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림교회 장학사업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영적 사업이다. 이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 방침에 따라 교회 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외부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장학생들은 미래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한기총, 민주평통 종교복지위원회와 업무협약 맺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8일(수) 오후 2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이수구 위원장, 이하 종교복지위원회)와 “대북·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 대북·통일 정책 현안, 2.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3.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 사

업을, 4. 국민·청소년 통일 교육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일외식 고취, 5. 기타 북한이 탈주민 지원 사업 등 양 기관이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력하는 협약을 맺은 것이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통일은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 중에 하나이다. 과거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큰 부흥이 있었다. 기독교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 간의 대화에 협력할 수 있는 일에 잘 협력하겠다. 우리의 노력들이 남북 관계 회복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때가 종교계가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 및 복지 활동들을 경험했다. 기독교가 남북 교류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견 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단체 기념촬영이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창립, 신임총회장 장한국 목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73:28)』



2016년 6월 6일(월)~ 8일(수),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금호리조트에서 총회를 창립한 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총회장, 임원들.



총회장 장한국 목사님과 임원 모두는 총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창립되었습니다.

진리총회는 뜻을 같이하는 건전교단과 개 교회의가입을 환영합니다.



▲ 총회를 창립한 후 정기총회를 갖고 2박 3일간 세미나를 가졌으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가졌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 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오진철 목사 H.P 010-8914-0969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구원의 감격으로

성경: 시편 26편 11~12절 찬송가 298장

본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평탄한 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배하기 위해 모인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알게 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받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목: 구원의 빛을 들고

성경: 시편 27편 1절 찬송가 309장

본 시편의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이 너무나 강하여 어떠한 두려움도 그를 짓누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빛에 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이 대적들의 위협과 그로 인한 수치를 상징한다면 빛은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빛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아직도 흑암에 있는 그 곳에 복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제목: 이 땅에서의 삶이

성경: 시편 27편 2절 찬송가 411장

2, 3절은 다윗의 원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2절은 과거의 승리를 3절은 미래의 승리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확신의 뚜렷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그 주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강한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 시편 27편 3절 찬송가 360장

군대 나 진찰지라도와 같은 단어에서 우리는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많은 수와 그 세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놀라운 체험에 근거해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오려면 한번밖에 온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온다 한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고 작은 시험이 올 때 이겨내야 큰 시험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이길 힘은 기도하는 자는 능히 이기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제목: 평생의 기도

성경: 시편 27편 4절 찬송가 365장

원문에는 한 가지 일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본 구절에서 한 가지 일이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음을 뜻한다.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왔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구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하는 기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울러 끈기 있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목: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 시편 27편 5절 찬송가 409장

환난 날에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시작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초막, 장막이라는 말은 다윗과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로써 우리가 살아 갈 때 하나님의 존재가 든든하고 믿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낼 것입니다.

제목: 감사가

성경: 시편 27편 6절 찬송가 243장

여기서 다윗은 대적에 대한 승리로 인한 축제의 기쁨을 노래와 찬송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제사란 축제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서 감사의 제사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지 돌아봅시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돌아보고 감사로 물드는 삶 사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끝까지

성경: 시편 27편 7절 찬송가 89장

본절은 다윗의 확신이 탄식으로 바뀌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적의 위협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에 대한 신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라는 말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완전하신 그분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임을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목: 내 얼굴을 찾ो라

성경: 시편 27편 8절 찬송가 299장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나에게 호소하라, 나를 신뢰하라, 또는 나를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시적표현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신 4:29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라라는 말씀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환난날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관점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가까이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목: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성경: 시편 27편 9절 찬송가 339장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 또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다윗이 신뢰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만일 여호와께서 거절하신다면 다윗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 당하고 배반 당했을 때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하물며 나의 도움의 원천 되시는 그분께 나의 도움이 끊긴다면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아픔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제목: 영접하시는 분

성경: 시편 27편 10절 찬송가 495장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도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는 문자 그대로 부모를 떠나 살았던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와 관계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만 여호와와 사람을 부모의 사랑에 비교하여 그 탁월함을 표현하려 했을 뿐입니다. 즉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그의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랑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목자와 같이

성경: 시편 27편 11절 찬송가 520장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애로운 목자와 같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목: 어떠한 언어입니까?

성경: 시편 27편 12절 찬송가 418장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폭력, 부당 행위를 의미하며 극도의 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악을 토하는 자란 잔인한 말로 폭력을 휘두르는 자, 또는 극도의 증오심으로 저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말로 하는 언어폭력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면 치료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의 오늘 한 마디 언어가 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더 많을지 아니면 저주와 악의 언어가 더 많은지 점검해봅시다.

제목: 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환상(렘1:11~12 절 편집부)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다. 예언자로 부름 받으면서 최초로 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다.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케드'인데, 동사 '샤카드'는 '깨우다, 지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살구나무는 이른 봄 맨 먼저 꽃이 핀다. 길고 긴 겨울잠을 깨고 새 봄을 맞는 '선구자'요 '선각자'인 것이다. 예언자는 잠자는 민중의 잠을 깨우고 지키는 '선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귀한 선물

애굽 총리대신에게 보낸 선물도 살구나무였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곳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창 43:11). 파단행이 바로 살구나무이다.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과일나무였던 것이다.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는 선물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을 보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고대로부터 살구 열매가 정력제로 효험이 있다고 믿었고, 오늘 날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살구씨 등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막의 금등잔도 살구꽃 형상이었다. "이런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가지를 갈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출 25:33-34).

금등잔은 '메노라'라고 부른다. 이것은 '빛'(노르)에서 온 말이다. 성막 안에 놓은 금등

성경: 시편 27편 13절 찬송가 171장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술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 받아 현재 지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강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환난의 때인 지금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여행도 그곳을 직접 가서 본 사람이 그 여행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자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증 할 것입니다.

제목: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성경: 시편 27편 14절 찬송가 286장

이 구절은 자신이 강해지려고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강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볼 것을 스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분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는 그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려분 되길 축복합니다.

잔 '메노라' 역시 살구나무 형상이었다. 이 나무는 예텐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또 언약의 안에도 아론의 싹난 살구나무 지팡이가 안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살구나무의 특별한 의미를 짐작케 해준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민 17:8-10).

지팡이는 족장의 지휘권을 상징한다. 지팡이(맛테)는 지파라는 뜻도 있다. 지파의 두령인 족장이 가진 지팡이(맛테)는 바로 '지파(맛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족장이 가지고 있는 '홀'이 바로 살구나무 지팡이였음을 알 수 있다. 아론의 지팡이만이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특별히拣지한 집안임을 입증하였다.

새 봄의 전령자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죽지 않은 생명력을 암시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생명의 하나님은 죽은 살구나무 지팡이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어 '생명나무'로 만드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름 받으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 지루하고 추운 겨울, 특히 장마비가 내리는 겨울이 끝날 때 맨 먼저 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하는 살구나무,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새 봄을 알리는 살구나무 같은 선각자들이 되자.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2 한일산기도원철야(이영금 원장)
4 인양광운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중수 목사)
12-14 온양중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김동찬 목사)
25-28 담심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15년 2월
2-5 갈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김해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현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영 원장)

2015년 6월
1-3 전진교회(송일목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온산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영선 원장)
13-16 김해배달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최정숙 원장)
27-30 애먼금식수양관(양희국 원장)

2015년 8월
2 이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해 원장)
17-20 갈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 조광수 목사)
1 온산리침례교회(최정숙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영 원장)
7-11 온누리복음화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정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환)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산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리선교지방문
7-9 살롬교회(고정민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나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한돌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예배교회(양복목 목사)
24-27 성일교회(이판석 목사)

2016년 2월
1-4 갈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해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정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불철축복대심방의 달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후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학식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광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윤홍준 목사)
1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23-26 초대중앙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새생교회(홍성민 목사)
6-10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홍식 목사)
1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20-24 선교지선학생여름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곤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9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 목사)
25-28 애먼금식수양관(양희국 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5-18 광은기도원(김해 원장)
22-25 갈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제18회 영광교회 전교인체육대회 열어

어르신들을 예수 믿게 하는 조강수 목사와 성도들

지난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면서 배고픈 나날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그 누구에게도 배고픈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물로 배를 채우고 성도도 없는 교회에 끌어왔던 기도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지인이 수박 한통을 먹으라고 주었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감사기도를 드리고 모처럼 수박으로 배를 채웠다는 조강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

며 기뻐하며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배고프고 몸 아프고 쓸쓸한 어르신들 4-500여 명을 매주 주일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3000~5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교통비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밤새껏 정성을 다하여 물어낸 맛난 국물에 국수와 맛깔난 김치와 음료수, 과일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요일 저녁 8시에 드리는 예배에도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있다. 수요일

밤에도 조강수 목사는 어르신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라면과 간식을 바리바리 쌓아서 드리면 어르신들은 돌아가면서 어깨춤을 덩실 덩실 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조강수 목사는 어르신들의 그 모습이 천사와 같으며 기쁨이 가득하다.

영광교회는 조강수 목사님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많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또한 조강수 목사는 한 두 명

이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하면 인천에서도 소문난 헬시 바싱가대가 동원하여 찬양과 전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축복받은 성가대원들이다.

이토록 소문난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영광교회(당회장 조강수 목사)에서는 지난 6월 5일(주일) 주일낮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천마초등학교에서 700여명의 성도들이 청홍팀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제18회 영광교회 전교인체육대회가 체육

부장 박재철 집사의 개회선언과 당회장 조강수 목사의 기도로 개최되었다.

영광교회 전교인체육대회는 청팀/마리아, 사라, 에스더, 소망, 온유, 홍팀/ 루디아, 한나, 비베, 사랑, 은혜, 기쁨 등 양 팀의 열띤 응원전에 힘입어 선수들의 사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체육대회는 주일학교 오프닝댄스를 시작으로 남녀선교 배구, 여선교 축구, 주일학교 장애물달리기, 학생부, 청년부 장애물달리기, 어르신들의 물병 넘여뜨리기, 학생부, 장년부 축구, 남선교 축구, 줄다리기, 청홍 계주, 폐회식 및 추첨 순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서 제18회 영광교회 전교인체육대회는 영광교회 체육부가 주최하고 장로회, 부서장, 남선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16



도 전교인체육대회는 청팀의 우승으로 돌아갔다.

한편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는 추첨을 통해 선봉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등 많은 선물을 전달하고, 참석한 성도들 전원에게 3Kg 설탕 1포씩 선물했다. 이 외에도 조강수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낮예배,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400~50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교통비 및 설탕, 쌀 등을 전달하고 있다.

영광교회는 주일낮예배에 이제

늦게 오는 성도들에게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당장 의자 50~100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영광교회에 담임 조강수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 너무 좋으며 영광교회를 오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들과 같고 딸처럼 느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중에는 103세의 노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마다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뮤지컬 “배우수업” 기획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와 피플지컴퍼니가 7월 문화이벤트로 장애인배우와 비장애인 배우들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사회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배우수업’ 뮤지컬을 공연한다.

창작뮤지컬 ‘배우수업’은 주크박스 뮤지컬의 형태로, 노래들이 담고 있는 삶에 대한 진솔한 담론들을 뮤지컬 속에 녹여 모두가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과 공감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들이 소통과 이해, 사랑으로 하나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장애인들에게도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피플지컴퍼니 김은경 이사는 “남녀노소와 장애인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퀄리티와 독창성을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수업’이 7월 29~30일 총4회 공연으로 노랑진 소재 CTS 아트홀에서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종진 목사 6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less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3401-7770

F: 02-3411-9111

3(금) 서울 한영신학교(총장 이영복 목사) ☎(02)2067-4670
4(토) 오후 서울역광장 전도집회 ☎(02)755-9171
주최: (재)한국기독교학술진흥재단(이사장 이형춘 목사)
중국(China) 청도 해외부흥협수련회(준비위원장 양명환 목사)
주관: (사)한국기독교교육진흥협의회(대표회장 장형철 목사) ☎010-5038-0691
중국(China) 청도 부흥협 연합집회(대표회장 장형철 목사) ☎010-5354-5542
13(월)~16(목) 캄보디아(Cambodia) 씨애플 원주민성회
(선교사 이부중 목사, 원주민 RADAR) ☎855-12911410
20(월) 저녁 가평 불기동기도원(원장 신성자 목사) ☎031581-0418
주최: 영성부흥총연합회(대표회장 조영성 목사)
미리암산교회(회장 박은주 목사) ☎010-4737-069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총동문회 연합성회(회장 염바울 목사)
장소: 충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장소: 서울 영정교회) ☎(02)435-0541
주최: 목회자사모신문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대전 제일교회(회장 김창수 목사) ☎010-6774-9005
23(목) 저녁 광명 일직교회(김영신 목사) ☎(02)897-1192
24(금)~26(주) 서울 임마누엘교회(홍사현 목사) ☎010-5255-2207
27(월) 오전 부천 천안교회(정만철 목사) ☎010-3224-2345
27(월) 오후 제199차 해외성회(199th Overseas Assembly)
27(월)~30(목)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Nysck World Conference '16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성 목사, 준비위원장 LA 김은목 목사)
장소: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6월~7월 집회일정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영광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6월 집회〉

- 6월 21일(화) 목회자세미나(아멘교회)
- 6월 23일(목) 6.25성회 (영광교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36(가좌동)
☎ 032)575-1654
http://www.youngkwang.net
- 6월 27일(월) - 6월 30일(목) 청주금식수양관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578-5
원장 : 백호선 목사(010-5736-3004) ☎043-269-5211

〈7월 집회〉

- 7월 3일(주일저녁)~7월 6일(수) 목포꿈의교회(담임 이요섭 목사)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 061-277-0498
- 7월 18일(월)~7월 20일(수) 부여수양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304-66
☎ 041-832-0211
- 7월 25일(월)~7월 27일(수) 충주금식기도원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573번지
☎ 043-853-3990
- 7월 29일(금)~7월 30일(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장사 조강수 목사

연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